

資本의 世界化에 대한 質的 考察

- 資本移動을 中心으로⁽¹⁾ -

金斗漢

본 연구는 世界化의 역사적 전개과정의 질적 차이점에 주목하여 기존 좌파 및 주류 경제사의 설명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좌파 경제학에서는 19세기 이래 자본의 세계화를 제국주의로 보아 왔으며, 주류 경제사에서는 1차 세계화, 양차대전으로 인한 세계화의 단절, 전후 2차 세계화로 보아 왔다. 그런데 좌파 및 주류 경제사의 이러한 설명은 세계화의 역사적인 질적 차이를 주목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전후의 世界化는 多國籍企業에 의해 주도되는 생산의 세계화라는 점에서, 전전의 금융주도의 비생산적이고 수탈적인 세계화와 질적으로 구분됨을 보인다. 또한 전후의 세계화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直接投資 중심의 世界化로서 전전의 포트폴리오 중심의 투자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생산적인 世界化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전후의 資本移動은 쌍방향적 자본이동으로서 전전의 일방향적 자본이동과 달리, 선진국간 배타적인 자본이동이 아니라, 선진자본주의 國民經濟를 상호 통합시키는 자본이동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전후 세계화가 진정한 국민경제를 넘어서는 진정한 자본의 세계화라는 점을 확인한다.

1. 序 論

세계화라는 어휘가 일상적인 것이 될 정도로 현재 세계화는 광범위한 현상이 되었다. 그런데 기존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적 차별성을 명확히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류의 세계화 관점에서는 1870~1914년 시기를 1차 세계화, 1914~1945년 시기를 세계화 단절기,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특히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본격적인 2차 세계화 시기로 본다[World Bank(2002), Feinstein *et al.*(2008)]. 그런데 주류 세계화론은 1차 세계화와 2차 세계화에 대한 질적인 차별성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1차 세계화는 제국주의적 세계화로서 國民經濟 중심의 내적 한계를 가진 세계화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전후 2차 세계화가 진정한 자본의 세계화라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 본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2009)인 “자본의 국민경제적 축적에서 세계적 축적으로”의 4장을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좌파 경제학에서 세계화는 자본주의 시작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며, 특히 정통 좌파는 19세기 말 이래 세계화는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세계화를 해석한다. 다시 말해 정통 좌파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배경으로 했던 시대를 자유경쟁단계로 규정하고,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를 독점단계의 자본주의로서 제국주의로 간주한다. 주류 경제사는 세계화를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좌파는 세계화를 제국주의로 해석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하지만 세계화를 시대적으로 질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류 경제사가나 좌파적 관점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 세계화를 질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입각해서 정통 좌파 및 좌파가 가지고 있던 세계화론, 즉 제국주의론을 주요하게 비판한다. 이와 함께 주류 경제사에서 세계화를 구분함이 없이 양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45년 이전까지는 정통 좌파의 제국주의론적 관점에 의한 세계화에 대한 분석이 적용 가능했으나, 1945년 이후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레닌, 부하린, 힐퍼딩, 룩셈부르크 등에 의한 고전적 제국주의론이 등장했던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 확보와 제국주의적(민족주의적) 대립이 광범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 1873년 대불황을 기점으로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국주의가 시작된다는 고전적 제국주의론의 견해가 1945년까지는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1945년 이전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축적 시스템인 반면에 1945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국민경제를 넘어서는 세계적 자본축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1870~1914년 ‘1차 세계화’가 세계화의 정도가 더욱 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차 세계화가 양적으로는 전후의 세계화에 비해 강도가 높았을지 모르지만 1차 세계화는 국민국가 단위의 제한된 세계화이며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2. 世界化의 質的 區分: 國民經濟 中心의 世界化와 多國籍企業에 의한 世界化

1차 세계화 혹은 그를 포함한 전전의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화는 국민경제 중심의 자본축적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다. 반면에 2차 세계화는 국민경제를 넘어서서 世界的 차원에서 자본축적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다. 국민경제라는 제한된 단위로 축적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세계적 자본축적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산업자본의

자본축적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이나 혹은 화폐거래자본이나는 구별은 기능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상인자본(상품거래자본의 형태이든 화폐거래자본의 형태이든)은 광업, 농업, 축산업, 제조업, 운수업 등등 — 이들은 사회적 분업에 의하여 생긴 산업자본의 분야들이며 따라서 산업자본의 특수한 투자영역들이다 — 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더욱 불합리한 것은 없다. … 경제학자들이 항상 형태의 구별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상 실체의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키는 두 가지의 이유가 … 존재한다[Marx(1994b, p. 61)].”

일부에서는 多國籍企業의 기원을 17, 18세기의 동인도 회사, 로얄 아프리카 회사, 허드슨 만 회사 등과 같은 기업들에까지 그 기원을 소급하기도 한다.⁽²⁾ 그러나 이들의 기업 활동이 비록 많은 나라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대의 多國籍企業과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활동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마르크스적 입장에서 보면 상인자본과 고리대자본(혹은 이자 낚는 은행자본)은 산업자본과 달리 직접 생산을 하는 자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산업자본에 종속된다. 하지만 종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탈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상인자본이 동인도회사와 같은 ‘多國籍企業’을 이끌었던 중상주의 시대의 독점과 약탈성 및 비생산성은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잘 나와 있다.

“향료군도에서 네덜란드인들은 풍년기에 생산되는 향료 중 유럽에서 충분한 이윤을 얻으면서 판매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양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태워 없앴다고 한다. …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들 자신의 독점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 자신이 시장에 공급하는 규모보다 더 많이 재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Smith(2003, p. 109)].”

“그러므로 식민지 무역의 독점은, 중상주의의 다른 모든 비열하고 악의에 찬 편법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이익을 피하기 위해 독점이 설정되어 있는 해당국의 산업을 조금도 발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축소시켰고, 다른 모든 나라의 산업, 특히 식민지 산업을 억압했다[Smith(2003, p. 133)].”

예컨대 이탈리아 상인들의 약탈성은 그들 상호간에도 약탈을 일삼았다는 사실 그리고 노예무역에 의존해서 성장했다는 사실만 언급해도 충분할 것이다. 또한 상인들 간의 전

(2) “예컨대 United Nations Librar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1993, Vol. 2 (Jones ed.)에 수록된 여러 논문들이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최성일(1998, p. 11)].”

쟁은 이후 중상주의 시대의 시장쟁탈전의 전형이기도 했다.

“1403년 10월 7일 앞서 언급한 다섯 척의 제노바 갤리선이 불리한 상황에서 제노바를 향해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배들이 종이와 질그릇을 잔뜩 싣고 가던 우리 측 대형갤리선 한 척과 맞닥뜨렸다. 제노바 갤리선들은 계략적으로 베네치아 범선에 산 마르코(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의 깃발을 펼쳐보이며 접근했고 결국 속아 넘어간 우리 측 범선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연이어 참패했던 제노바인들은 베네치아 범선으로부터 공급부족에 시달리던 종이와 질그릇을 빼앗았다. 곧이어 제노바인들이 쾌속범선으로 무장한 세 척의 코퀴선을 거느리고 우리 측 만에 나타났다. 그 가운데 쇠뇌와 병력을 갖춘 제노바 전함 두 척이, 금화 2만 2,000두카트에 상당하는 피륙을 싣고 선장 지오바니 오비초의 지휘 아래 마요르카에서 돌아오던 베네치아 코퀴선을 공격했다. 제노바인들은 그들 모두를 포로로 삼고 제노바로 돌아갔다(Carpentier and Lebrun(2006)).”

또한 한자동맹도 상인자본의 ‘多國籍企業’이라고 할만하다. 한자 도시동맹에 150개 가까운 도시가 참여하였고, 해외 주요 무역거점에는 콘트레라고 하는 치외 법권을 인정받는 상관을 상설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런던, 벨젠(노르웨이), 노브고르드(러시아), 브뤼즈(프랑드르, 벨기에)의 네 개였다. 하지만 이들은 중개무역에 종사하면서 생산자들을 수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뿐, 그들이 직접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지는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전 단계들에서는 상업이 산업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는 그 반대이다. ... 이리하여 상업자본은 그것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어느 곳에서나 약탈제도를 대표하게 되는데, 사실상 상업자본의 발달은 고대 및 근대의 상업민족의 경우 폭력적 약탈, 해적, 노예획득, 식민지 정복 등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예컨대 카르타고와 로마에서 그러하였고, 그 뒤에는 베니스인, 포르투갈인, 네덜란드인이 그러하였다(Marx(1993, pp. 396-398)).”

또한 이런 자본형태의 차이는 경제의 역사적 발전 수준과도 직결된다. 은행자본의 원형인 이자 낚는 자본(또는 그 낚은 형태인 고리대자본)은 쌍둥이 형제인 상인자본과 함께 자본의 태고적 형태들이다. 고리대자본의 존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생산물들의 적어도 일부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과, 상품거래와 동시에 화폐의 각종 기능들이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의 역사도 이탈리아 상인들로부터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던 자본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기에 제3세계로의 진출을 선도했던 한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³⁾ 마르크스에 따르면

(3) “고리대자본은 자본의 생산방식을 가지지 않으면서 자본의 착취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부르즈와 경제 내부에서도 낙후한 산업분야들에서 또는 근대적 생산방식으로서의 이행에 반항하는 산업분야들에서 다시 나타난다(Marx(1993, p. 736)).”

근대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이 바로 상인자본과 고리대자본을 종속시키면서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만일 고리대자본이나 상인자본에 의한 세계화를 찾고자 한다면 고대 로마 세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⁴⁾ 하지만 그들에 의한 세계화는 약탈적이거나 생산의 발달을 제한했다. 19세기 말 금융세력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던 세계화는 공업분야의 세계화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생산을 증대시키는 세계화는 아니었는데, 이런 비생산적인 특징은 식민지의 경우 더욱 뚜렷했다.

반면에 산업자본에 의한 세계화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화된다. 다시 말해 1945년 이후의 世界化는 비금융 多國籍企業들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세계적 생산의 확대가 전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1873년 대불황 이전의 경우에는 다국적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1945년 이전까지는 다국적기업의 성장은 오히려 억제되어 있었다.

“제2차 대전 이전에는 상품생산의 중요한 부분이 모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독점체라는 의미에서의 다국적기업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원자재류를 독점화하는 제국주의적 콘체른들은 거의 모두 그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전반적 과정은 자본이 국가간에 상당한 정도로 상호 침투하지 않은 채, 자본의 국제적 집적 및 국내적 집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더구나 양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본수출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다. 1914년에 모든 국제간 자본운동의 거의 90%가 유가증권투자의 형태를 취했던 반면, 오늘날 그러한 흐름의 75%가 多國籍企業에 의한 直接投資로 구성되어 있다(Mandel(1985, p. 307)).”

철도 및 광산분야에 투하된 자본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산업부문이지만, 그것은 포트폴리오 투자형태였으며 비경쟁적인 공익사업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탈적인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제조업 산업자본 같은 생산적인 자본의 直接投資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힐퍼딩은 산업자본의 수출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다른 자본수출과 구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업분야 특히 제조업분야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광산 및 철도분야처럼 공업화와 직결되지 않는, 그리하여 제국주의 본국의 자본의 시장을 축소시키지 않는 분야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사회간접자본부문 및 광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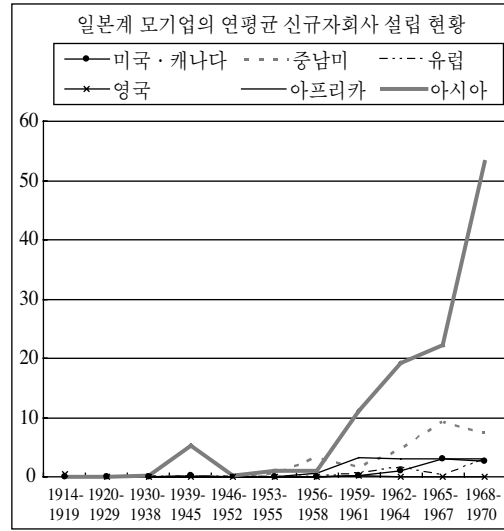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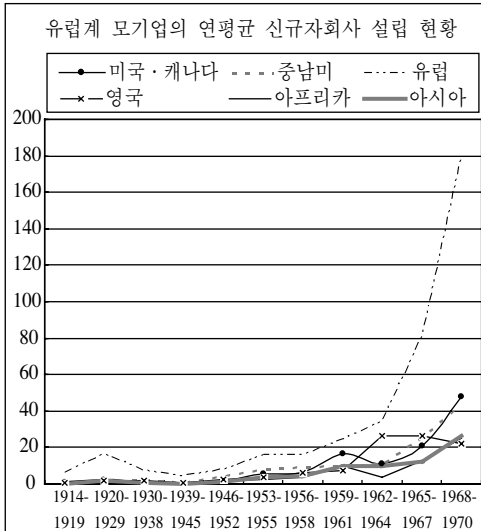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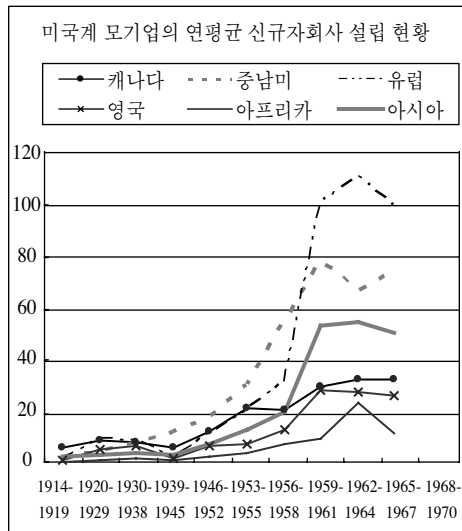
(4) “이자 낚는 자본(또는 그 낚은 형태인 고리대자본)은 그 쌍둥이 형제인 상인자본과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매우 다양한 경제적 사회구성체에서 볼 수 있는 자본형태들이다. 고리대자본의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산물들의 적어도 일부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과, 상품거래와 동시에 화폐의 각종 기능들이 발전하는 것뿐이다. 고리대자본의 발달은 상인자본의 발달, 특히 화폐거래자본의 발달과 결부되어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공화정 말기 이래 비록 제조업은 고대세계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지만 상인자본·화폐거래자본·고리대자본은 — 그 고대적 형태의 한계 안에서 — 최고의 수준까지 발달한다(Marx(1993, p. 730)).”

〈表 1〉先進 主要國 多國籍企業(製造業)의 地域別 年平均 新規 子會社 設立數(1914~70年)

	1914~19	1920~29	1930~38	1939~45	1946~52	1953~55	1956~58	1959~61	1962~64	1965~67	1968~70
미국계 모기업											
캐나다	5.3	8.4	7.7	5.7	12.1	20.8	20.5	29.7	32.0	32.6	
중남미	2.0	3.9	7.4	11.8	17.4	30.1	55.2	78.4	67.1	74.4	
유럽	1.7	9.2	8.6	2.1	10.9	20.6	31.3	102.1	111.6	99.6	
영국	0.8	4.8	6.0	1.7	6.1	7.0	12.7	28.2	27.5	26.1	n.a.
아프리카	0.2	0.5	1.4	0.7	2.2	3.7	6.7	9.0	23.3	11.0	
아시아	1.8	3.0	3.7	2.6	6.9	12.7	19.8	53.2	54.7	50.7	
계	11.8	29.9	35.0	24.6	55.1	94.3	146.3	300.3	319.7	296.3	
영국계 모기업											
미국·캐나다	0.5	1.8	1.0	0.1	2.6	3.4	12.9	14.0	10.9	22.3	37.9
중남미	0.7	1.4	0.7	0.4	0.9	2.6	2.4	7.7	4.1	6.7	10.7
유럽	1.0	4.6	4.6	0.7	3.8	2.3	3.4	32.3	29.8	44.0	73.4
아프리카	0.5	1.6	1.0	1.0	11.8	4.4	4.4	23.6	27.1	33.7	56.9
아시아	1.8	2.4	3.6	2.3	10.1	5.7	8.3	32.8	33.6	46.7	60.5
계	4.5	11.8	11.0	4.8	28.8	18.3	31.3	111.0	106.3	153.0	243.0
유럽계 모기업											
미국·캐나다	1.5	2.7	0.9	0.4	1.6	5.6	6.3	16.7	10.8	20.7	48.1
중남미	0.3	1.5	1.8	0.6	4.3	7.7	9.4	10.0	10.3	25.2	43.2
유럽	5.9	16.5	7.1	4.1	7.9	16.1	15.9	24.4	34.1	81.0	179.2
영국	0.8	1.8	1.6	0.7	2.2	3.7	6.3	7.3	26.6	26.6	22.3
아프리카	0.0	0.4	0.0	0.1	1.6	2.7	3.7	10.0	3.9	12.8	25.4
아시아	0.0	1.7	0.8	0.3	1.0	3.4	4.6	10.0	9.9	12.2	26.1
계	8.5	24.9	12.4	6.3	18.4	39.0	43.7	77.3	76.3	177.3	343.3
일본계 모기업											
미국·캐나다	0.0	0.0	0.0	0.3	0.0	0.0	0.0	0.3	1.0	3.0	2.7
중남미	0.0	0.0	0.1	0.0	0.0	0.7	3.3	1.7	4.6	9.3	7.5
유럽	0.0	0.0	0.0	0.0	0.0	0.0	0.0	0.7	1.7	0.3	3.0
영국	0.0	0.0	0.0	0.0	0.0	0.0	0.0	0.3	0.0	0.0	0.0
아프리카	0.0	0.0	0.0	0.0	0.0	0.0	0.7	3.3	3.1	3.1	3.1
아시아	0.0	0.1	0.2	5.3	0.3	1.0	1.0	11.1	19.1	22.2	53.2
계	0.0	0.1	0.3	5.7	0.3	1.7	4.7	30.3	37.7	70.0	

資料: Buckley and Casson(1995) 재인용.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에 지리적으로 국한된 산업이며, 바로 그런 점에서 본국의 독점 및 금융자본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혹은 본국의 산업자본들의 상품수출을 원활히 하려고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따라서 현대에는 내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철도와 약탈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광산에 대한 투자를 진정한 다국적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資料: Buckley and Casson (1995) 재인용.

〈그림 1〉先進 主要國 多國籍企業(製造業)의 地域別 年平均 新規 子會社 設立數(1914~70)

〈表 2〉美國 製造業 企業의 英國과 獨逸에 대한 進出 增加 現況

	기업수 현황			
	1900~1917	1918~1929	1930~1948	1949~1971
영국	22	42	93	544
독일	14	28	33	330

資料: Chandler(1990) 재구성.

[Hilferding(1994, pp. 444-445)]. 반면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분야 다국적기업의 등장은 자본축적이 본격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전후 좌파경제학자인 만델도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축적의 새로운 시대를 구분 짓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Mandel(1985, p. 308)]. 이와 같이 산업자본의 多國籍企業이 2차 세계대전 이래 본질적인 현상이었다고 본다.

위 〈表 1〉⁽⁵⁾을 보면 모든 나라들에서 1945년 이후 급격히 다국적기업이 증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알프레드 찬들러의 위의 資料 〈表 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게 될 直接投資의 증대도 이런 점과 일치한다. 좌파의 많은 학자들 뿐만 아니라 UN의 관점도 다국적기업은 전후에 등장한 것으로 간주한다[佐藤定幸(1988, p. 19)].

194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多國籍企業의 세계적 축적이 활발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다국적기업의 기원이 1945년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국적기업은 1873년 대불황을 전후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당시의 國民經濟단위의 국수주의 혹은 제국주의적 환경 속에서 양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또한 질적으로도 19세기의 해외直接投資는 1차 산업 부문인 원자재 및 채취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19세기 말까지 플랜테이션 등 원료부문에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산업자본 및 제조업 활동 즉 국제적 생산은 제한적이었다.⁽⁶⁾ 다국적기업으로서는 중상주의 시대의 동인도회사가 있었고, 19세기~20세기에

(5) “미국의 자료는 1963년에 6개국 또는 그 이상의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187개 최대 제조기업에 대한 자료로서, 이중 규모가 가장 작은 기업의 1968년 매출액은 약 1억 달러였고 전체적으로 이들이 미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비미국계 기업에 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1970년의 200대 제조기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 중 일부 기업은 단지 극소수의 해외 자회사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며 작은 기업은 1970년의 매출액이 약 4억 달러였다[Buckley and Casson(1995, pp. 3-4)].”

(6) “해외직접투자가 1차 산업에 집중된 것은 다국적기업 전체 제조활동 분야에서 일부분만 담당했으므로 국제적 생산은 제한적이었음을 뜻한다[Held et al.(2002, p. 373)].”

는 다국적은행이 있었으나, 제조업 다국적기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⁷⁾ 다국적은행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전적 제국주의론자들도 잘 알고 있었으며 바로 그들이 당시 世界化를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한다[Lenin(1986)]. 하지만 그들은 다국적은행과 산업자본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은행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독자적 중요성에 주목하지 못한 것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대전 이후 전간기 동안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약간 증대하다가 멈춰버렸다. 민족주의 및 제국주의적 정책이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경제통합을 정지시키고 파괴시켜 버렸다. 그리하여 전간기 다국적기업은 전후 상황과는 정반대의 환경 속에서 압살당하기도 했다.

“1920년대 후반에는 다국적 제조업체도 뿌리를 내렸다. 많은 회사가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 국가간 무역은 통제되기 시작했고 자본이동체제도 무너졌다.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으며, 선진국 국민들의 소득도 하락하였다. 이 때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국수주의적 정부가 등장했다. 이런 모든 상황은 국제비즈니스에 끔찍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제조업과 원자재 업종의 다국적기업은 FDI의 대안으로 국제카르텔을 만들었다. ... 1950년대 들어 1·2차 세계 대전 사이에 출현했던 국제 카르텔은 해체됐고 미국의 다국적 제조회사들은 서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Jones(2005, pp.91-109)).”

다시 말해 World Bank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족주의 혹은 제국주의는 기본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세계적 자본축적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비록 World Bank는 이런 민족주의적 후퇴를 단지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간주하고 있으나(World Bank(2002, p.26)), 사실상 그 뿌리는 1차 세계화 자체의 성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전후 다국적기업의 번창은 제국주의론의 세계 분할적 체제를 논박한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독점기업에 의한 세계시장의 분할을 제국주의의 주요한 지표로 제기한다. 이런 주장은 다른 고전적 제국주의론자인 힐퍼딩과 부하린 등도 제기하고 있다. 힐퍼딩은 자본주의 세계시장이 기본적으로 민족경제영역 단위로 분할된 한계를 가진 것으로 본다[Hilferding(1994, p. 519)]. 부하린은 세계적 규모의 재생산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점을 주장한 것 같지만, 경쟁을 사라지게 하는 국가적 독점체가 식민지 합병으로 세계 단일국가를 이룰 것이라는 주장한다[Bukharin(1987, pp. 117-118)].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7) “1860년에는 100개가 넘는 해외지점을 갖고 있었고, 1890년에는 700개로 늘었으며, 1914년에는 거의 1,400개에 달했다(Jones(1993)).”

시장의 분할과 재분할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서 레닌도 마찬가지다 [Lenin(1986, pp. 101-102)]. 그러나 고전적 제국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국제 카르텔 등에 의한 세계분할 주장의 타당성은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라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성장하는 다국적기업은 1차 世界化 과정이나 전간기의 트러스트 혹은 카르텔과 같이 그 활동이 國民經濟 내부의 영역에 국한된 기업 시스템과는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현상 중의 하나가 多國籍企業(Multinational enterprise)의 번성기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기업을 소유하고 사업활동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탈공업화 사회 이후 어떠한 경제조직도 다국적기업과 같이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고도로 세련된 형태로 성장한 조직체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가장 흡사한 것으로는 금세기 초에 번성했던 트러스트(trust)와 카르텔(cartel)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트러스트와 카르텔은 그 범위가 단지 **국내에 국한되었을**(강조는 인용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제 경영활동은 세계본부로부터 직접 관리되기보다는 영성한 사업계 지도자 연합에 의해 운영되었다. 카르텔의 번성은 정부가 반독점법(antitrust law)을 제정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Buckley(1995, p. 1)].”

오히려 독점에 의한 시장분할이 번성하면서 존재하던 몇몇 다국적기업의 발달을 제약했다.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세계적 자본축적의 주체는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이라고 할 때, 2차 대전 이전은 결코 세계적 자본축적이 아니었다. 2차 대전 이전에는 본질적으로 국민경제 중심의 국제활동만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다국적기업 자체는 전전과 다른 경제적 논리가 작동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다국적기업은 당시 고전적 제국주의론자들이 제국주의의 주요 특징으로 규정했던 ‘世界市場의 分割’이라는 주요 특징을 없앴으로써 전후 시대는 전전과 상이한 경제체제임을 보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시장을 분할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의 경쟁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국적기업은 자국 시장을 포함하여 세계시장을 놓고 상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1945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다국적기업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2007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다시 말해 세계적 생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다국적기업은 자본수출의 형태를 생산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3. 資本移動의 質的 區分: 포트폴리오 投資와 直接投資

다국적기업의 등장과 함께 변화된 내용은 자본수출이다. 제국주의론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자본수출이며, 이 자본수출의 문제는 세계화의 비교에서는 자본시장 통합에 대한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고전적 제국주의론자들 모두가 자본수출이 제국주의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고전적 제국주의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세기 말 대량의 자본이 식민지를 포함해서 영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미국 호주 등 주변부 산업국들로 수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자본수출은 전간기에도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중 등 그 강도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리고 브레튼우즈 체제에 들어와서는 국제적 資本移動은 통제되었는데, 그것은 전간기 통화불안정이 투기자들의 탓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었다[양동휴(2007, p. 39)]. 그리고 전후 국제투자는 증대하기 시작했지만, 그 중심적 투자자는 미국이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1차 세계화 시기에 자본수출의 양적 규모를 보면 자본의 이동량이 워낙 대량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도 GDP 대비 해외투자율이 100년 전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Feinstein *et al.*(2008, p. 26)]. 따라서 외형적 크기만을 본다면 전전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더욱 통합된 것처럼 보이며, 전후 세계화의 현상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자본수출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수출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多國籍 企業의 등장과 함께 해외 直接投資라는 생산적인 방식 그리고 국경을 넘는 경쟁적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전전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등의 직접적인 생산적 기업활동은 제한적이었으며, 포트폴리오 중심의 투자였다. 그리고 식민지의 경우에는 철도 및 광산에 대한 直接投資가 존재하였지만, 그것은 비제조업 영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배제하는 독점적 방식이었으며 주로 해당 정부 조세 및 광산에 대한 직접적인 약탈과 관련되어 있었다(〈表 3〉 참조). 하지만 전후에는 다국적기업의 세

〈表 3〉 英國의 海外 投資(1913年)

	금액(£백만)	구성비(%)
자치정부, 식민지정부, 외국정부채권 및 해외지방단체증권	1,125.0	29.9
철도증권	1,531.0	40.6
전기·가스·수도·전신전화·궤도·운하 증권	185.1	5.0
제조업 및 상업	208.5	5.5
원료(광산, 초산염, 석유, 고무, 홍차, 커피)	388.5	10.3
은행금융	317.1	8.4
기타	8.1	0.3
합계	3,763.3	100.0

資料: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1937).

〈表 4〉 直接投資：美國의 民間 長期 資本輸出 殘高

(단위: 백만 달러)

	직접투자	증권투자	합계
1914	2.7	0.8	3.5
1927	6.6	5.9	12.5
1930	8.0	7.2	15.2
1946	7.2	5.0	12.3
1950	11.8	5.7	17.5
1955	19.3	7.4	26.7
1960	32.8	12.6	45.4
1965	49.5	21.8	71.3
1970	78.1	26.6	104.7
1971	86.2	29.7	115.9
1972	84.3	34.7	129.0
1973	107.3	36.2	143.5
1974	118.6	41.4	160.0

資料: Survey of Current Business 각 호, 허남벽(1978) 재인용.

〈表 5〉 海外直接投資 年間成長率, 1960~93年

(단위: %)

	해외직접투자 누적분	해외직접투자 흐름	전 세계 총생산	수출
1960~67	7.5	7.4	5.2	7.8
1967~73	11.1	14.3	10.4	18.0
1973~80	14.2	10.7	11.1	20.0
1980~85	5.3	7.3	5.6	-0.4
1986~93	15.0	19.4	8.0	10.7

資料: Held et al.(2002) 재인용.

계적 경쟁을 매개로 해서 공업부문을 주요 부분으로 한 직접투자가 광범위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직접투자가 전전에도 많았던 것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업과 석유 등 채취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등 비제조업 부문이 제조업에 비해 컸던 것이 그 이유이다. 반면에 전후 직접투자는 제조업과 라틴아메리카 이외의 지역으로 투자증대가 두드러진다[허남벽(1978, p. 122)]. 〈表 4〉을 보면 1930년에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거의 비슷했으나 1974년이 되면 3:1의 비율

로 증가한다. 또한 1960~93년에 해외직접투자의 연간성장률이 크게 증가했다(〈表 5〉 참조).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直接投資는 국민경제를 넘어서 工業生産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당시의 공익사업 및 채굴사업부문의 직접투자가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국한되었다는 제국주의라는 정치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한다.

힐퍼딩은 포트폴리오투자와 부분적으로만 존재했던 생산적인 직접투자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포트폴리오투자든 생산적 투자든 제국주의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모두 포트폴리오 투자와 생산적인 직접투자 모두가 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을 뿐, 포트폴리오투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공업부문 특히 생산재 부문의 직접투자가 거의 없다는 데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이들의 관심사는 제국주의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이 주관심사였기 때문일 것이다. 고전적 제국주의론자들이 제국주의의 필연성으로 과잉생산 및 과잉자본과 그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본수출 자체에 주목한 것은 옳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본수출의 일반성에 주목한 나머지, 포트폴리오투자와 직접투자가 질적으로 상이한 자본수출이며 그 차이가 미치는 결과도 상이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우선 포트폴리오투자는 그 자체로서 산업적인 생산적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통해 도입된 자본이 공업화에 기여할지 여부는 그것을 수입하는 지역과 수출하는 지역과의 관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투자가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어 공업화가 될 수 있는 유럽이나 자치령 등의 경우와 사정이 이와 같이 않았던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양태는 달랐다. 그리고 전자가 자본주의적 산업의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면, 후자의 형태에서는 제국주의적 공업화를 배제하고 직접적인 수탈을 통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直接投資는 많은 나라들의 생산이 성장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직접투자는 19세기 공업화 제국에서 외국투자 활동의 아주 매력적인 투자형태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과 과학 기술 정보 및 경영적 수완까지를 결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있어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는 이러한 종류의 투자가 하나의 중요하고 가치있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차 산품 수출국 특히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제국에서는 직접투자를 수출산업, 예컨대 플랜테이션 작물이나 광업에 집중한 것이 일반적으로 현지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자본 수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다(Keenwood and Loughheed(1985, p. 65)).”

이런 점에서 아민(S. Amin)이 중심부-주변부에 대한 주장을 펼치면서, 신중심부와 신주변부로의 자본수출을 구분한 것은 포트폴리오투자가 미치게 될 영향과 관련하여 자본수입국의 경제적 상황을 구분한 것은 마르크스적 관점에서도 올바르다[Amin(1986, pp. 149-150)].

유럽 지역과 일본 등 이미 봉건제 사회를 거친 사회 혹은 유럽의 자유민이 기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정착한 곳(Western Offshoots)과 같이 자본주의적 투자를 방해하는 기존 체제가 없는 곳, 또한 자유로운 노동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임노동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공업화가 가능하였다. 유럽의 자유민이 정착한 이런 지역을 마르크스는 근대적 식민지라고 규정함으로써⁽⁸⁾ 전자본주의 지역 및 다른 시대의 식민지와 차별화하였다. 이런 지역에서는 선진 자본주의국의 자본들은 무역을 통한 시장확보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수출을 통해 곧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므로 강제적인 지배방식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화폐자본을 조달받은 나라 측에서는 이미 산업화된 나라로부터 산업자본이 생산한 제품들 그리고 산업화에 필요한 실물자본을 여타 지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독자적인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한편으로는 자본수출국의 상품시장을 확대시키지만 점차적으로 경쟁상대국으로 부상해감에 따라 자본수출국의 상품시장은 협소해진다.⁽⁹⁾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수입하던 국민국가들이 산업화됨에 따라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해지고, 오히려 앞서 아민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수출국으로 됨에 따라 간접투자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과잉자본에 의한 과잉생산의 문제, 즉 시장부족의 문제는 생산적 투자를 통한 생산확대를 지속함으로써 모순적인 한계 내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국민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축적은 생산적 투자의 확대를 저해하는 한편, 유희자본은 비생산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로 유출되고 있었다. 오히려 전전의 역사적 상황은 國民經濟간 장벽을 높이 올리고 식민지를 확대하며 상호 대결하는 제국주의적 방향으로 나갔다. 하지만 전후에는 상황이 급변하였는데, 각 국민국가의 자본들은 해외 직

(8) “여기에서는 진정한 식민지(즉 자유이민에 의하여 개척되고 있는 처녀지)를 취급한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유럽의 식민지이다. 그 외에 노예제도의 철폐에 의하여 사정이 아주 달라진 종래의 재배식민지(플랜테이션)도 여기에 속한다[Marx(1994a, p. 961)].”

(9) “영국은 19세기 중엽 자유무역을 채택하여 ‘세계의 공장’ 즉 모든 나라에 대한 공산품 공급자라는 역할을 선언하였고, 다른 나라들은 공산품과 교환하기 위해 영국에 원료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보호’ 관세로 자신들을 방어하면서 독립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해 감에 따라 19세기 후반 그러한 독점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Lenin(1986, p. 92)].”

接投資를 통해 국민경제 내의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간접적인 투자방식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자본주의적 투자가 가능하지 않은 사회제도가 형성된 곳에서는 산업화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직접적인 수탈을 강화하고 산업화를 제한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수익은 공업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세금과 금광 및 철광산 등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수탈의 주요한 명분과 수단인 바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채 형태의 투자였지만, 수익은 산업화가 아니라 강제적 수탈에 의해 충당되었다.

“한편 식민지에는 철도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도 건설되었으며 그것을 위해서 많은 투자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정치적·군사적 목적과 함께 식민지 내륙과 항구를 연결하고, 그것을 식민지 본국과 연결함으로써 원료품 생산을 확대하고 그 수송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본국 제품의 식민지 전역에서의 판매를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식민지의 경제개발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 더군다나 철도투자에 대해서는 인도정청에 의해서 5%의 이자보장이 주어졌다. 즉 인도 국민의 세금부담에서 철도회사의 이윤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외국자본에 의한 철도건설은 중남미라든가 중국 등지에서도 진전되었지만, 그 목적과 경제적 효과는 기본적으로 인도의 경우와 동일하다[김종현(2003, p.296)].”

〈表 6〉 第3世界와 先進國의 工業化 水準, 1750~1990年(영국 1900 = 100)

	총제조업 생산(10억 달러)		1인당(지수)		선진국/제3세계
	제3세계	선진국	제3세계	선진국	
1750	93	34	7	8	1
1800	99	47	6	8	1
1830	112	73	6	11	2
1860	83	143	4	16	4
1900	60	481	2	35	18
1913	70	863	2	55	28
1928	98	1,260	3	71	24
1938	122	1,560	4	81	20
1953	200	2,870	5	135	27
1973	927	8,430	14	315	23
1980	1,320	9,910	19	347	18
1990	2,480	12,090	29	412	14

資料: Bairoch(1993, p. 91); 양동휴(2007) 재인용.

물론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유럽 제국의 상품의 판매는 해당 식민지에서 상품경제를 발달시키고 그리하여 기존의 아시아적 전제적 경제체제를 붕괴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발달의 예비적 조건을 성숙시켜나갔다. 그러나 그 예비적 조건은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은행자본이 주도하는 당시의 식민지체제에서는 해당 지역의 산업발달이 저해되기도 하였다[김종현(2003, p. 295)].

이와 달리 1945년 이후의 직접투자의 등장은 개도국의 공업화를 수반하며 생산을 증대시켰으며, 전 세계적인 시장의 확대를 낳았다. 이점은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렇게 전후와 전전의 공업화의 수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래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表 6〉 참조).

“위 공업화 수치는 전통적인 공업과 현대 공업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1인당 제조업 생산을 의미하는 공업화 수준의 1913년 수치는(제3세계의 경우: 인용자) 1750년의 1/3에 해당한다. 그동안 선진국에서의 공업화 수준은 거의 7배 증가했기 때문에 양 지역간의 격차는 1대 28로 매우 커졌다. 1750년에 제3세계는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70~76%를 생산했으나, 1913쯤에는 7~8%만을 생산했다. 만약 우리가 자료를 현대 공업에 국한해서 본다면, 제3세계는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7~8%가 아니라 1~2%만을 담당한다[Bairoch(1993, pp. 91-92)].”

요컨대 자본수출국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유럽 나라들과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산업화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계시장은 간접적으로 확대되지만, 이들이 경쟁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자본수출국의 시장확대는 제한된다. 그리고 식민지의 경우는 시장을 직접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그리고 해당 지역의 소생산자들을 몰락시킴으로써 시장확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장확보는 해당지역의 공업화를 오히려 파괴함으로써 식민지의 생산적 투자가 증대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세계시장의 확대를 제한하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생산이 여전히 국민경제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투자가 야기하는 협소한 방식의 시장확대로써는 급격히 증대하는 자본주의 생산력을 담아낼 수 없었다.

반면에 직접투자로의 전환을 포함한 1945년 이후의 변화는 선진산업국들 간의 경계를 넘어서 상호 생산을 증대시키고 생산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시장확대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제3세계의 공업화를 수반함으로써 생산재의 수출뿐만 아니라 소비재시장의 창출도 낳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 간의 경쟁의 심화는 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국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이 신규 생산에 투자하는 방식 즉 내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중간재 생산을 외주화하거나 하청을 주는 등 상호 독립적인 방식으로 경쟁 및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Letto-Gillies(1992, p. 29)].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의 금융 불안정성 및 파괴성에 의해 이런 직접투자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지당해 왔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전후 직접투자의 질적 차별성이 쉽게 파악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본 것처럼 전전의 자본수출과 전후의 자본수출은 생산적 성격에서 상이하고, 국민경제를 넘어서느냐의 문제에서도 질적으로 상이한 자본수출이다.

4. 資本市場의 統合과 多國籍企業: 先進 資本主義國間 資本市場의 統合增大

4.1. 資本移動 方向의 變化: 先進國에서 開途國으로 一方的인 移動에서 先進國 雙方間 移動으로

1차 세계화 시기인 금본위제 시기의 資本移動性이 높았고 더욱더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견해가 주류의 일반적 견해이다. 당시 제국주의적이기도 했던 선진국의 순 자본이동의 정도는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하지만 이런 양적인 특징은 질적인 차이를 모호하게 한다.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이동은 國民經濟 중심의 자본이동으로서 일방향적인 자본이동이자 배타적인 자본이동이었다. 전전 자본이동의 질적인 특징 점은 자본이동의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개도국 혹은 비자본주의권 식민지로의 자본이동이었다는 점이다. 자본이동이 있었으나 여전히 국민경제를 중심으로 공업생산과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 형태의 자본수출이었다. 제국주의로 접어들던 1차 세계화 때는 선진국들의 자본시장은 국민경제 단위로 분할되어 경쟁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直接投資가 제약되었다. 다시 말해 선진국 자본 간의 상호경쟁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 상호간 직접투자를 통한 국경을 넘는 경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양상을 반영하여 자본이동은 선진국에서 개도국 및 식민지로 일방향적이었다. 그리하여 당시는 자본 수출국과 자본 수입국으로, 자본풍부국과 자본부족국으로 양분되어 있었다[Dunning(1973, p. 59)]. <表 7>을 보면 부채의 대다수가 개도국 및 식민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들의 전체부채와 순부채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상황은 급변하였다. 1945년 이후의 자본이동은 선진국 간에 자본이동이 주도하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것은 기존 국민경제 차원의 고립된 자본 활동이 아니며, 또한 자본수출이라는 간접적인 그리하여 금융적인 방식의 과잉자본

〈表 7〉 兩次大戰 以前의 主要 債務國

	총부채				순부채	
	1913		1938		1938	
	10억 달러	%	10억 달러	%	10억 달러	%
유럽	12.0	27.3	10.3	18.8	-	-
라틴아메리카	8.5	19.3	11.4	20.8	11.3	33.9
미국	6.8	15.5	7.0	12.8	-	-
캐나다	3.7	8.4	6.6	12.0	4.7	14.1
아시아	6.0	13.6	11.2	20.4	9.3	27.9
아프리카	4.7	10.7	4.0	7.3	3.9	11.7
오세아니아	2.3	5.2	4.4	8.0	4.1	12.3
전체	44.0	100.0	54.9	100.0	33.3	100.0

資料: Dunning(1973) 재인용.

해소도 아니다. 전후 자본이동은 직접투자방식이었으며,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국민경제 단위로 분할되지 않고 자본이 상호 이동하는 실질적 통합의 성격을 띠었다. 이런 방향의 전환은 직접투자 비중의 변화에도 나타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전의 경우에 선진국 으로의 직접투자는 제조업을 다수 포함하지만 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제조업 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의 직접투자들은 製造業을 필두로 한 자본이 동이었다.⁽¹⁰⁾

요컨대 1945년 이후의 자본이동은 자본시장이 이미 성숙된 선진국간 이동을 중심으로 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表 8〉 참조). 이점은 자본수출이 식민지에 대한 기생적이고 수탈적인 성격의 자본이동이라는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와는 상이한 양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후의 질적으로 달라진 상황은 기존 제국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측면들을 초래하였다. 특히 전후 자본이동의 특징은 선진국 간의 쌍방향적 자본이동이 일반화되었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45년 이후 자본수출국은 또한 자본수입국이 되면서 쌍방향적 이동의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Dunning(1973, pp. 71-74)]. 물론 2차 대전 이후, 초기에 자

(10) “세계적 직접투자의 분야별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직접투자는 1차 상품이 주요했으며 특히 천연자원이 핵심적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으로 전환이 있었으며 1960년대 이후 직접투자의 주요한 부문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서비스 부문의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대했다. … 이 과정은 서비스 부문에 의한 제조업 분야의 대체를 의미하지 않고 서비스 분야가 세계화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 모두에서 直接投資의 증대를 초래해왔다[Letto-Gillies(1992, pp. 25-26)].”

〈表 8〉 流入된 直接投資 總 價値量(stock)

(단위: %)

	1914	1938	1960	1971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선진국	37.2	34.3	67.3	65.2	75.1	75.5	71.4	78.4	71.7	67.7
개발도상국	62.8	65.7	32.3	30.9	24.9	24.5	28.6	21.4	27.0	30.1
중앙 및 동유럽	n/a	n/a	n/a	n/a	n/a	0.02	0.02	0.2	1.3	2.2
그 외	-	-	0.4	3.9	-	-	-	-	-	-

資料: Ietto-Gillies(2002) 재인용.

본의 이동을 주도했던 것은 미국이었다. 그러나 점차 유럽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금 과잉자본이 점차적으로 유럽국들 상호간에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상호간에 이동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는 미국이 중요한 투자 유치국으로 된다.

“1970년대 이후의 또 다른 큰 변화는 미국이 중요한 투자 유치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전후 미국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FDI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다. 반면에 1960년대 말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유치한 FDI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됐다. 하지만 미국은 투자 유치국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확대했다. 1975~1980년대에는 세계 FDI 투자의 4분의 1을 미국이 유치했다. 그 비중이 1980년대에는 40%로 늘어났다. 1990년까지 미국으로 들어온 FDI 투자금액은 미국이 해외에 투자한 FDI와 비슷한 규모로 커졌다(Jones(2005, p. 109)).”

이는 유럽자본주의국들의 경제회복과 팽창의 결과이지만 또한 통합된 세계자본주의의 논리이기도 하다. 이런 쌍방향 간의 자본이동 특히 선진국 간의 자본이동은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의 경제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자본이동이다. 새로운 양상인 쌍방향적 자본이동은 기존의 자본수출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졌다. 이 점은 좌파뿐만 아니라 주류의 경제학도 마찬가지다. 주류의 기존 국제적 자본이동의 핵심적인 이론은 이자율 격차 이론이었는데, 이 이론도 기본적으로 자본의 쌍방향 투자를 설명하지 못한다[안세영(1998, p. 170)]. 룩셈부르크는 비자본주의국으로의 자본이동만이 자본주의 경제의 팽창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으며, 레닌의 경우 과잉자본이 후진국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서 존재하는 한 과잉자본은 그 나라 대중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자본가들의 이윤은 하락할 것이므로 — 후진국에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후진국에서는 자본이 희소하고, 토지가격이 비교적 낮으며, 임금이 낮고, 원료가 싸기 때문에 이윤이 높다. … 또한 자본수

출의 필요성은 몇몇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과잉성숙’ 되어 있으며,(농업의 후진성과 대중의 빈곤으로 인해) ‘유리한’ 투자영역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나온다[Lenin(1986, p. 94)].”

레닌의 오류는 자본은 이윤율이 하락하더라도 시장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상호간 자본이동을 통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자본수출의 전제조건이 이윤율의 차이에 입각하고, 자본의 이동은 이윤율을 균등화시킨다는 힐퍼딩의 주장도 부정확하게 된다.⁽¹¹⁾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당시 경험적 사실들을 이론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5년을 거치면서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자본수출이 이윤율의 차이에 입각한다면, 선진국 상호간 쌍방향적 자본이동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적 관점의 틀내에서 과잉자본의 설명은 한계에 봉착한다. 사실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런 선진국 간의 쌍방향 투자 현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주요한 투자는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고려되는 포트폴리오 중심의 투자였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를 중심으로 산업자본이 축적하였으며 국민국가 간에 제국주의적 대립이 불가피했던 경제적 토대를 반영한 이론들이 고전적 제국주의론이었다. 하지만 고전적 제국주의론의 자본수출이론이 전후 資本移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파들 내에서조차도 과잉자본론에 입각한 자본수출론을 수정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소위 다국적기업의 탄생, 나아가서 그 기반이 되었던 대외투자(특히 선진자본주의 제국 상호간 직접투자)의 비약적 증대라는 새로운 현상은 자본수출이론이 옛 모습대로 머무르는 것을 허용치 않고 그 발전·심화에 박차를 가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논자에 의해 지적된 바이다. 필자도 이 책에서 지금까지 그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필자의 주장을 가능한 한 간결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의 자본수출론은 국민적 이윤율의 차이에 기초한 자본의 이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레닌의 그것은 제국주의국가에서의 ‘過剩資本’의 항상적 존재라는 요인을 근거에 깔고, 그 위에 국민 이윤율의 차이, 구체적으로는 후진제국, 식민지에서의 고이윤율에 의해 환기된 자본수출이라는 논리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 1950년대 말 이후의 대외투자의 급증은 선진국 상호간의 直接投資가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사실은 저이윤율국 → 고이윤율국, 선진국 → 후진국(내지 식민지)이라는 패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 특히 선진자본주의 제국간의 상호 직접투자는, 자본수출은 자본과잉국에서 자본부족국으로의 단순한 자본이동 내지는 저이윤율국에서 고이윤율국으로의 일방적인 자본이동으로서 설명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치 않고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친 자본주의 국제경제 관계의 비약적 밀집화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동질화가 진행됐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세계시장을 국내시장처럼 간주하고 행동하

(11) “자본수출의 전제조건은 이윤율의 차이이며, 자본수출은 국민적 이윤율을 균등화시키는 수단이다[Olle and Schoeller(1982, p. 50)].”

는 기업, 또 그것을 위해 필요한 관리형태를 갖춘 기업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다름 아닌 다국적기업이다.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자본수출은 ‘資本의 過剩’ 으로부터가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각국 자본간 경쟁의 시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佐藤定幸(1984, pp. 133-134)].”

그러나 사실 쌍방향간 자본이동은 과잉생산 및 과잉자본 해소의 한 차원 심화된 방식이다. 기존 과잉자본(과잉생산)의 해소 방식은 이윤율이 높은 곳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후에는 이윤율이 비슷하거나 결국 낮아지더라도 생산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확보하는 자본주의 본연의 과잉생산 해소 방식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 상호간의 자본이동을 통한 과잉자본 해소 방식은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와 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개도국으로의 자본이동을 통한 자본주의 확산의 방식과는 다르다. 이러한 과잉자본 해소 방식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외부로 돌릴 수 없고 모순을 내부적으로 심화시키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 자본주의의 운동범위였던 국민경제를 넘어서서 그것을 더욱더 통합시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윤율이 결국에는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직접투자를 하는 것은 고전적 자본수출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일 뿐, 과잉자본에 입각한 자본수출론은 여전히 타당하다. 따라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를 단순히 자본의 구조적 위기로 보는 정성진 등의 견해의 오류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정성진(2006, p.315)].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는 자본주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노동생산성 증대라는 자본주의 발전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윤율이 저하하는 방식으로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가피한 법칙임을 마르크스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독점적 이윤율을 주장하는 기존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왜냐하면 전후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따르면 자본수출을 통해서 독점이윤율을 향유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기 때문이다.⁽¹²⁾

반면에 고전적 제국주의론의 설명은 제국주의 자본간 생산적 경쟁을 통한 상호 시장확대 가능성이 배제된, 제국주의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이론이었다.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가들은 제국주의시대 독점자본들 간의 대결과 분할된 독점적 시장을 법칙으로 이론화했었다. 따라서 독점자본들이 시장을 상호 허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쌍방향간 직접투자에 의한 상호간 경쟁의 논리와 제국주의 논리

(12) “만일 수출되고 있는 자본이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 내에서 투자되었다면, 그것은 상품의 과잉생산을 초래함으로써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수출은 독점가격체제를 위협하는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한다[Olle and Schoeler(1982) 재인용].”

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특히 국제적인 산업 내 무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산업 내 직접투자가 일반화된 추세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선진국 간에 국경을 넘는 상호 직접투자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투자 중 커다란 액수가 産業 內(intra-industry) 투자다. 산업 내 투자란 국가를 넘어서는 투자가 동일한 산업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산업 내 무역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 Dunning(1982)과 Norman과 Dunning(1984)은 주요 서구 공업국들의 산업 내 직접투자를 매우 높은 액수로 추정하고 있다[Jetto-Gillies(1992, p. 23)].”

다시 말해 전후 자본주의에서는 배타적인 시장분할이라는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의 양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반면에 자본풍부국 간에 자본이동의 증대는 국민경제의 구분을 넘어서는 자본의 공급 및 수요 경쟁이 일반화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세계적 생산과 세계적 경쟁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산성 증대 경쟁과 선진국 상호간 시장확보 경쟁은 이윤율을 낮춘다. 하지만, 생산 확대를 통한 시장 확대의 과정으로서 자본주의 과잉생산의 문제를 모순적으로 해소하는 본연의 방식이다.

4.2. 雙方向的 資本移動과 一方向的 資本移動: 世界 資本市場統合과 開途國으로의 資本移動

이와 같이 선진국 간의 쌍방향적 자본이동은 세계적 생산의 강화와 함께 더욱더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점은 쌍방향적 자본이동이라는 현상이,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과잉자본을 해소해야한다는 정통 좌파적 주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쌍방향적 자본이동이라는 현상은 오히려 과잉자본의 문제가 해소되는 새로운 역사적인 현상으로서, 생산확대를 통한 과잉자본(과잉생산) 해소라는 자본주의 본연의 시장확대 방식이다. 다시 말해 과잉자본의 해소는 이제 2가지 방식, 즉 자본풍부국에서 자본부족국으로 持續的 資本移動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자본주의 나라들 사이에 雙方向的 資本移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은 전후의 미국, 유럽, 일본이라는 삼각축을 중심으로 한 자본이동에 주목하면서 개도국이 자본시장으로부터 배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이다.⁽¹³⁾ 왜냐하면 현

(13) “세계경제 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시각은 초국적 기업의 활동을 나타내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회의론이 해외직접투자에서 세계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미국, 유럽, 일본의 삼국(3-triad)에 집중되어 있고 소수의 개발도상국만이 혜택을 받으면서 나머지 국민국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장시복(2002, p. 36)].”

〈表 9〉 開途國에 流入된 外國資本 總 價値量(stock), 1870~1998年

(단위: 10억 달러 기말기준, %)

	1870	1914	1950	1973	1998
총액(경상가격)	4.1	19.2	11.9	172.0	3,590.2
총액 1990년 불변가격 기준	40.1	235.4	63.2	495.2	3,030.7
총액(stock)의 개도국 GDP 대비 비중	8.6	32.4	4.4	10.9	21.7

資料: Maddison(2001).

〈表 10〉 世界投資 流出額

(단위: 100만 달러)

기간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그 외 투자	전체
1990	243,012	187,348	205,411	635,771
1991	198,259	333,194	164,231	740,338
1992	211,378	353,007	175,953	740,338
1993	245,564	535,832	177,941	959,337
1994	286,163	337,297	202,183	825,643
1990~1994	236,875	349,336	185,144	771,355
1995	361,886	408,836	244,538	1,016,260
1996	396,785	651,301	267,472	1,315,558
1997	469,610	740,049	317,707	1,527,366
1998	680,768	1,016,928	565,727	2,263,423
1999	851,317	1,388,102	682,819	2,922,238
1995~1999	552,073	841,243	416,653	1,808,969
1998	680,768	1,042,420	575,997	299,285
1999	851,317	1,362,635	694,629	2,908,581

資料: Lipsey(2001).

실에서는 선진국간 쌍방향적 자본이동이 우위를 점하면서도 여전히 자본풍부국에서 자본 부족국으로의 자본이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와 그 외 대출 등의 부채가 많으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유입되는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다. 〈表 10〉에서 보면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자금흐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투자보다는 직접투자의 비중이 크다(〈表 11〉 참조). 그리고 전체적인 직접투자의 장기적인 흐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表 11〉 開途國에서의 資本의 純流入額 (단위: 10억 달러)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순 장기부채	42,427	73,382	16,981	16,790	76,387	101,780	160,485	283,310
해외직접투자	24,460	104,001	165,478	161,890	225,546	288,472	367,492	470,782
포트폴리오 투자	3,390	13,794	13,482	24,070	40,372	68,885	104,849	145,100

資料: World Bank(2008).

〈表 12〉 世界 直接投資 流入額 (단위: 10억 달러)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진국	543.9	609.0	442.3	361.2	418.9	590.3	857.5
개도국	326.2	392.7	314.6	277.1	209.2	495.0	566.4
독립국가연합+ 남동유럽	312.9	381.6	307.3	256.7	204.2	486.4	531.0
세계	740.7	832.6	622.0	564.1	742.1	945.8	1,305.9
선진국	73.4	73.2	71.1	64.0	56.4	62.4	65.7
개도국	25.4	25.5	26.7	31.7	38.1	33.2	29.0
독립국가연합+ 남동유럽	1.2	1.4	2.2	4.3	5.4	4.4	5.3

資料: UNCTAD(2007).

그리고 질적으로 선진국의 직접투자는 M&A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성장의 정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생산적인 집적투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결국 점차적으로 그 이외의 자본시장의 확대를 장기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1989년부터는 직접투자의 유입량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확인된다.⁽¹⁴⁾ 이런 점은 앞서 〈表 9〉에서처럼 개도국에서 직접투자 저장(stock)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중으로는 선진국의 직접투자가 많지만 순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도국의 직접투자량이 많다. 다시 말해 선진국은 직접투자의 유출액이 많은데 반해서, 개도국의 직접투자 유출액이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후 자본풍부국에서 자본부족국으로의 資本移動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직접투자 유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체제전환국이었던 지역들로의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대하고

(14) “1989년 이래 OECD 국가들이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Held et al.(2002, p. 387)).”

〈表 13〉 世界 直接投資 流出額 (단위: 10억 달러)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진국	638.5	662.2	488.2	504.0	746.0	706.7	1,022.7
개도국	74.3	80.6	47.9	45.4	117.3	115.9	174.4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2.0	2.7	4.7	10.7	14.0	14.6	18.7
세계	714.8	745.5	540.7	560.1	877.3	837.2	1,215.8
선진국	89.3	88.8	90.3	90.0	85.0	84.4	84.1
개도국	10.4	10.8	8.9	8.1	13.4	13.8	14.3
독립국가연합 + 남동유럽	0.3	0.4	0.9	1.9	1.6	1.7	1.5

資料: UNCTAD(2007).

있다.

이와 같이 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 비중의 증대는 자본이동이 과잉자본의 해소과정이라는 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이다. 물론 선진국 간의 자본이동도 이미 지적인 것처럼 과잉자본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추가적으로 언급하면 개도국의 경우도 정상적인 자본주의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외로의 진출이 더욱더 주요한 자본축적의 방식으로 되어 간다. 이런 점이 아직은 작지만 개도국의 직접투자 유출액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5. 結 論

世界化는 자본주의 이래 지속된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계화는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상이한 것이었다. 전전의 1차 세계화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까지의 2차 세계화에도 뒤지지 않는 것이지만, 질적으로는 2차 세계화에 비해 하위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1차 세계화는 國民經濟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화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차 세계화는 여전히 생산의 세계화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세계화였다. 이 시기 세계화는 식민지를 통한 기생적이고 수탈적인 세계화로서 지속될 수 없는 세계화였다. 그리고 금융주도에 의한 비생산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중심의 資本移動이 대다수를 차지한 세계화였다. 이러한 1차 세계화는 국민 경제 중심의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보호무역과 독점이라는 반세계화적 경향을

대포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국민국가 간의 배타성이 결국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 대전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반면에 2차 세계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본의 세계화로서 産業資本이 주도하는 세계적 생산이 본격화된 세계화였다. 따라서 이 시기 자본이동도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라 直接投資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이전의 자본이동은 국민경제 중심의 일방향적 이동에서 국민경제 간의 통합화를 향해 나가는 雙方向的 資本移動이 주도하는 세계화였다. 2차 대전 이전에는 선진 자본주의국 간의 자본흐름은 제한된 반면 식민지 및 개도국으로 자본이동이 대다수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상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제국주의 정책이 철회됨에 따라, 선진 자본주의국 간의 자본이동이 세계 자본이동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런 선진국 간의 자본이동의 활성화와 함께 개도국으로의 자본이동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다시 말해 국민경제간 배타성이 철회되고 국민경제를 넘어서는 세계통합적 자본흐름이 시작된 것이었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의 세계화는 전전의 세계화와는 달리 한층 높은 수준의 資本의 世界化를 의미한다.

이런 사실들은 자본의 세계화를 질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19세기 이래의 세계경제를 제국주의로 간주하려는 좌파 경제학의 한계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정통 좌파는 기생적이고 수탈적인 한편 국민경제적 배타적이었던 제국주의시대와 전후 시대의 생산적인 자본주의 세계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좌파와 마찬가지로 양적인 접근에 치우친 주류 경제사의 세계화에 대한 설명도 질적 차이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류 경제사에서는 자본의 형태상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주도 1차 세계화의 비생산적이고 수탈적인 성격을 간과하였다. 이런 점은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를 수반한 세계화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과는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세계화의 질적 차이는 자본이동 및 형태상의 차이 외에도 상품시장, 자본의 경쟁형태 그리고 국제통화제도 등의 차이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지면상의 문제로 자본형태 및 자본이동의 차이를 통해서만 이를 살펴보았다.

勞動者 政治 經濟研究所 所長

140-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16-2 4층 401호

전화: (02)797-8007

팩스: (02)797-8013

E-mail: kkim21@empal.com

參 考 文 獻

- 김종현(2003): 『근대 경제사』, 제2판, 서울, 경문사.
- 안세영(1998): 『다국적기업 경제학』, 서울, 박영사.
- 양동휴(2007):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시복(2002):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성진(2006): 『마르크스와 트로츠키』, 파주, 한울아카데미.
- 최성일(1998): 『전후 자본주의의 변화와 다국적기업』, 부산, 세종출판사.
- 허남벽(1978): “새로운 경제질서로서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
구소 편, 『경남문화연구』, 1, 122-123.
- 佐藤定幸(1988): 박찬익 옮김, 『다국적기업의 정치경제학』, 서울, 풀빛.
- Amin, S. (1986): 김대환, 윤진호 옮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1권, 서울, 한길사.
- Bairoch, Paul(1993): *Economics and World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Buckley, P. J., and M. Casson (1995): 강태구 옮김, 『다국적 기업의 장래』,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
부.
- Bukharin, Nikolai(1987): 김정로 옮김, 『제국주의론,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서울, 지양사.
- Carpentier, J., and Francois Lebrun(2006): 강민정, 나선희 옮김, 『지중해의 역사』, 파주, 한길
사.
- Chandler, Alfred. D. Jr.(1990): *Scale and Scope: The Dynamics of Industrial Capitalism*, Cambridge,
Belknap Press.
- Dunning, John H.(1973): *International Investment*, Harmondsworth, Penguin.
- Feinstein, Charles H., Peter Temin, and Gianni Toniolo(2001): 양동휴, 박복영, 김영완 옮김, 『대
공황 전후의 유럽경제』, 동서문화사.
- _____ (2008): 양동휴, 박복영, 김영완 옮김, 『대공황 전후의 유럽경제』, 서울, 동서문화사.
- Geoffrey, Jones (1993): *British Multinational Banking 1830~1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김동호 외 옮김,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MNE,” 『자이언츠,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히스토리』, 서울, 베리타스.
- Held, David, Anthony McGrew, David Goldblatt, and Jonathon Perraton(2002): 조효제 옮김, 『전
지구적 변환』, 서울, 창작과 비평사.

- Hilferding, Rudolf(1994): 김수행, 김진엽 옮김, 『금융자본』, 서울, 새날.
- Letto-Gillies, G.(1992): *International P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02) : *Transnational Corpor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eenwood, A. G., and A. L. Loughheed(1985): 박명섭 옮김, 『국제경제사』, 형설.
- Lenin, V. I.(1986): 남상일 옮김, 『제국주의론』, 서울, 백산서당.
- Lipsey, Robert E.(2001):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Operations of Multinational Firms: Concepts, History, and Data,” NBER Working Paper, **8865**, December.
- Maddison, A.(2001):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Paris, OECD.
- Mandel, Earnest(1985): 이범구 옮김, 『후기자본주의』, 서울, 한마당.
- Marx, Karl(1993) : 김수행 옮김, 『자본론』 III권 상·하, 서울, 비봉출판사.
- _____ (1994a): 김수행 옮김, 『자본론』 I권 하, 서울, 비봉출판사.
- _____ (1994b): 김수행 옮김, 『자본론』 II권, 서울, 비봉출판사.
- Olle, Werner, and Wolfgang Schoeller(1982): “Direct Investment and Monopoly, Theories of Imperialism,” *Capital and Class*, **16**, **50**.
- Smith, Adam(2003): 김수행 옮김, 『국부론』(상), 서울, 동아출판사.
-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1937):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UNCTAD(2007) :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New York, United Nations.
- World Bank(2002): *Globalization, Growth, and Poverty*, Washington, DC, World Ban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 *Global Development Finance*, Washington, DC, World Bank.